

# 콜롬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0. 12

I. 일반개황 .....	2
II. 경제동향 .....	3
III. 정치·사회동향 .....	10
IV. 국제신인도 .....	12
V. 종합의견 .....	15

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

## I. 일반개황

면적	1,039천 km <sup>2</sup>	G D P	2,333억 달러(2009년)
인구	45.66백만명(2009년)	1 인 당 GDP	5,038 달러(2009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 화 단 위	Peso(Ps)
대 외 정 책	경제중심 실리외교	환 율(달러당)	2,166.79(2009년 평균)

□ 콜롬비아는 인구가 브라질에 이어 남미 2위인 4천 6백만 명에 이르고 있고, 2009년 GDP 규모는 2,333억 달러, 1인당 GDP는 5,038달러인 하위중소득국임.

□ 1990년대 후반에 고금리 및 재정적자로 인한 외채 누적 등으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으나, 우리 베 정권 취임 이후 치안 개선에 따른 투자여건 호전, 주요 수출품인 석유와 커피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회복하였음.

## II. 경제동향

### 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06	2007	2008	2009e	2010f
경제성장률	6.7	6.9	2.7	0.8	4.4
재정수지 / GDP	-0.4	-0.4	0.5	-2.2	-3.6
소비자물가상승률	4.3	5.5	7.0	4.2	2.3

자료: EIU

#### □ 대외 여건 개선으로 경제성장세 회복

○ 콜롬비아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무장 게릴라 활동과 마약 범죄 만연으로 정국불안이 지속되었으며, 1990년대 말 수출부진,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확대, 외채 누적 등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음.

○ 2002년 우리베(Alvaro Uribe) 대통령 취임 이후 강력한 범죄 예방 정책 실시로 치안이 개선되어 외국인투자가 회복되었으며, 주요 수출품인 석유와 커피의 국제가격 상승에 힘입은 수출 호조로 2007년까지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를 시현하였음.

\* 우리베 정권 취임 이후 2002년 21억 달러에 불과하던 FDI 유입액이 2008년 106억 달러로 확대

○ 2007년에는 국제유가 상승, 수출 및 FDI 증가, 내수 호조 등에 힘입어 1995년 이래 최고치인 6.9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.

- 그러나 2008년에는 주요 교역국인 미국의 경기 침체, 주요 수출 품인 석유 및 커피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.7%를 기록하였으며,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심화로 0.8%로 둔화하였음.
-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(402억 달러, 전년대비 18.1% 증가), FDI 증가(94억 달러, 전년대비 28.8% 증가),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4.4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□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

- 재정수지의 경우 연금지급, 외채 이자비용, 지방 정부 지원, 과다한 국방비 지출 등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,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로 GDP 대비 0.5% 내외로 재정적자 규모가 축소되었으며, 2008년에는 재정수지가 균형(0.5%)을 유지하였음.
- 2009년에는 경제성장세 둔화로 인해 조세 수입이 감소하고,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로 지출이 확대되어 재정적자폭이 2.2%로 확대되었음.
- 2010년에는 유류세 징수액 축소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로 재정적자가 GDP의 3.6%로 확대되었음.

#### □ 물가상승률 안정세 유지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0년대에는 정부의 선심성 지출 확대, 폐소화 약세 지속 등으로 20%대에 육박하였으나, 이후 중앙은행(Banco de la Republica)의 적극적인 긴축통화정책에 힘입어 꾸준

히 감소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 4~5%대를 기록하였음.

- 2008년에는 금리 인상 및 폐소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상승, 정부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%까지 상승하였으나, 2009년에는 내수 침체, 식료품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4.2%까지 둔화하였음. 2010년에는 중앙은행의 긴축통화정책 지속으로 물가상승률이 2.3%까지 둔화할 전망이다.

## 2. 경제 구조 및 정책

### 가. 구조적 취약성

#### □ 높은 대미 의존도 및 외부 변동에 취약한 수출 구조

- 2009년 콜롬비아의 GDP 구성은 서비스업 52.8%, 제조업 38.2%, 농업 9%로 역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다변화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.
- 이에 반해, 교역 상대국 비중 면에서는 2009년 콜롬비아의 대미 수출 및 수입이 각각 33.4%, 31.7%를 차지하는 등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며, 수출의 반 이상이 석유, 석탄, 커피 등 1차 산품에 치중되어 있어 기후 변화 및 국제가격 시세 변동 등 외부적인 변동 요인에 취약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음.

### 나. 성장잠재력

#### □ 친시장적 정책 및 치안 상황 개선에 따른 FDI 유입의 대폭적인 확대

- 우리배 대통령의 지속적인 재정 개혁 노력 및 친시장적 정책과 더불어 우익 민병대의 무장 해제 등을 통한 치안 상황 개선을 통해 콜롬비아는 지속적인 FDI 유입 효과를 거두어 왔으며

2007년에는 GDP의 4.4%인 90억 달러를 기록하며 취임 전인 2001년 25억 달러대비 260%의 대폭적인 증가를 기록하였음.

- 2008년 콜롬비아 내 FDI 유입액은 106억 달러로 2004-07년간 매년 평균 74.4억 달러 내외 FDI가 유입되었음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수준임.
- 2009년에는 주요 투자국의 경기침체, 자원가격 하락, 미국과의 FTA 발효 지연 등으로 FDI 유입액이 73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, 2010년에는 석유 및 석탄 등 자원부문에 대한 투자 재개로 94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.

□ 높은 원유 매장 잠재력 및 유전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외자 유치 노력

- 콜롬비아의 원유 확인 매장량은 15억 배럴로 중남미 6위 산유국이나, 투자 재원 부족으로 전국토의 20%만을 탐사한 상태여서 향후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큼.
-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지 못하면, 2010년 이후 원유순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로 인해 우리베 정부가 외자유치를 통한 원유 및 천연가스 광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유전 개발분야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.
- 또한 콜롬비아는 석탄 매장량 중남미 1위국(세계 12위)으로 수출액 중 석탄이 원유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 석탄의 질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, 생산량의 90%를 수출하고 있음(수출량 세계 5위).

다. 정책성과

## □ 재정 개혁 및 각종 개혁 추진

- 우리베 정부는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적극적인 부채 관리를 통해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외화표시 부채를 국내 통화 부채로 지속적으로 전환하여 환율 변동에 의한 위험을 축소시켜 왔음.
- 2006년 3월 재선에 성공한 우리베 대통령은 기존의 신중한 긴축 재정정책을 지속하는 한편, 각종 구조개혁을 통해 공공 재정 강화에 힘썼음.
- 또한, 공공부채 축소 및 지속적인 물가상승률 안정화, 금융부문 강화, 민영화를 통한 인프라 건설 확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정책을 통해 2002년 출범 이후 고도 성장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음.
- 2010년 8월에 출범한 집권당 출신의 산토스(Juan Manuel Santos) 대통령도 우리베 정부의 친기업 성장 주도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.

### 3. 대외거래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6	2007	2008	2009 <sup>e</sup>	2010 <sup>f</sup>
경 상 수 지	-2,989	-5,977	-6,901	-5,033	-6,300
경 상 수 지 / G D P	-1.8	-2.9	-2.8	-2.2	-2.1
상 품 수 지	322	-596	971	2,546	3,600
수 출	25,181	30,577	38,534	34,026	40,200
수 입	24,859	31,173	37,563	31,480	36,600
외 환 보 유 액	14,673	20,096	22,810	23,158	25,722
총 외 채 잔 액	38,934	44,974	46,813	52,038	55,371
총 외 채 잔 액 / G D P	23.5	21.2	19.3	23.1	20.1
D. S. R.	30.5	21.3	16.1	19.8	19.8

자료 : EIU, IFS

#### 가. 대외거래

##### □ 경상수지 적자 추세 지속

- 콜롬비아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산업활동 증가 및 경기회복에 따른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 증가,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배당금지급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 심화 등으로 최근 수년간 확대 추세에 있음.
- 2000년 이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은 1%대를 유지하였으나, 2007년에는 수입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2.9%까지 확대되었음.
-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수출 증가로 상품수지는 흑자를 기록



하였으나,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,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배당금 지급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 심화 등으로 3년 동안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2%대를 기록하였음.

□ FDI 유입액 증가세 지속

- 2002년 출범한 우리배 정부의 친시장적 정책 및 치안 개선 노력으로 콜롬비아의 FDI 유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. 2002년 21억 달러에 불과하던 FDI 유입액이 2008년 106억 달러로 확대되었음.
- 2009년에는 주요 투자국의 경기침체, 자원가격 하락, 미국과의 FTA 발효 지연 등으로 FDI 유입액이 73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, 2010년에는 석유 및 석탄 등 자원부문에 대한 투자 재개로 94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.

나. 외채상환능력

□ 외채지표 개선 추세 지속

- 수출호조와 FDI 유입 지속 등으로 인한 외환보유액 증가와 외채 상환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외채지표가 개선되었으며, 실제 외채상환불능위험도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.
- 총외채잔액은 2010년 11월말 현재 554억 달러 수준이며, GDP대비 총외채 비율은 2006년 23.5%에서 2010년에는 20.1%로 크게 낮아졌음.

### Ⅲ. 정치·사회동향

#### 1. 정치동향

##### □ 2010년 8월 산토스 정부 출범

- 2010년 8월 집권여당의 전임 국방장관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강력한 범죄 예방 정책을 펼치는 등 우리베 정부의 친시장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
##### ※ 우리베 대통령의 2010년 3선 시도 실패

- 콜롬비아는 보수당과 자유당 사이의 정치 투쟁이 정점에 이른 대폭력 시대 이후 국민전선 체제를 통해 양당간 교대 집권 및 주요 공직 공동 배분으로 정권 안정을 이루었으며, 1974년 전선 해체 이후에도 선거를 통해 비교적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지속 하였음.
- 2002년 8월 취임한 우리베(Alvaro Uribe) 대통령은 강력한 마약 퇴치 및 게릴라 소탕 작전을 전개하면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였으며, 높은 국민 신임도를 토대로 2006년 3월 재임에 성공하여, 2010년까지 집권하게 되었음.
- 높은 정책 지지율(2009년말 80%)을 기반으로 우리베 대통령의 세번째 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으나, 헌법재판소의 부결로 임기 연장 추진이 실패로 끝났음.

#### 2.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

##### □ 치안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, 게릴라 문제 지속

- 콜롬비아는 2대 게릴라 단체인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(FARC), 국가해방군(ELN)과 70-80년대에 등장한 마약 카르텔 및 우익 민병대(AUC)의 활발한 활동으로 불안한 치안 상황이 지속되었으나, Uribe 정부 취임 이후 치안 강화 및 꾸준한 협상 노력을 통해 2006년 우익민병대(AUC)가 공식적으로 무장해제를 선포함.
- 2008년 3월 창시자이자 최고 지도자였던 마누엘 마를란다의 사망과 정부군과의 충돌 끝에 서열 2위 라울 레제스가 사망하면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(FARC)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며, 계속된 정부군과의 충돌로 인력 및 재정 기반이 약화되었음.
- 강력한 치안 강화 정책과 더불어 Uribe 대통령 취임 이후 경기 회복으로 실업 및 빈곤 문제도 꾸준히 개선됨에 따라 2008년 게릴라 단체에 의한 납치 건수가 2002년 대비 88%로 감소하는 등 치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음.
- 게릴라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으나 콜롬비아 무장혁명군(FARC)과의 대치가 지속되고 있으며, 마약관련 조직범죄 발생 등 고질적인 치안 문제도 지속되고 있음.

### 3.국제관계

#### □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

- 콜롬비아는 미국, EU 등 친서방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, 특히 미국으로부터 1999년도부터 매년 6-7억 달러의 마약 및 게릴라 소탕자금을 지원받는 등 전통적으로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 이와 함께 1991년에는 안데안 지역의 마약밀매 근절 등을 목적으로 안데안 무역 특혜법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 관계도 활성화되었음.

- 한편, 콜롬비아는 2006년 7월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나 미국 국회의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.

□ 에콰도르, 베네수엘라 등 주변 국가과의 외교 관계 악화

- 2008년 3월 에콰도르 국경 지대에서 벌어진 콜롬비아군과 콜롬비아 무장혁명군(FARC)의 무력 충돌 관련하여 에콰도르 및 베네수엘라 정부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(FARC)과 긴밀한 연계가 있었음을 명시하는 내부 문서가 발견되어 외교 관계 악화
- 2008년 7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양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, 악화되었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화해 조짐이 형성되고 있으나, 향후 평화적 관계가 정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.

#### IV. 국제신인도

##### 1.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수출입은행	C1 (2010.12)	C1 (2009.02)
OECD	4등급 (2010.01)	4등급 (2009. 7)
S&P	BBB- (2010.07)	BBB- (2007. 6)
Moody's	Ba1 (2010. 9)	Ba1 (2008. 6)
Fitch	BB+ (2010.10)	BB+ (2007. 6)

□ 2007년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후 현재까지 등급 수준 유지

- 2007년 S&P와 Fitch는 투자 호조로 인한 경제성장세 지속, 조세

수입 증대, 재정적자 축소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6월에 각각 콜롬비아의 국가신용등급을 BBB- 및 BB+로 상향조정함.

- Moody's는 콜롬비아 외채 부문의 괄목할 만한 개선, 경제 개혁의 지속, FDI 증가 등 긍정적인 요소들을 감안, 2008년 6월 종전 Ba2에서 Ba1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함.

## 2. 주요 ECA의 인수태도

- 미국EXIM: 최고부보율적용
- ECGD: 최고부보율적용
- Hermes: 단기전액인수가능

## 3. 외채상환태도

### □ 외채 상환 태도 양호

- 콜롬비아는 1980년대 초 중남미 외채 위기시 공적 채무에 대하여 리스케줄링을 실시하지 않았으며, 외채 상환 및 경제운용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태도로 국제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그 동안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받아왔음.
- 한편, 2005년 4월에 IMF와 18개월 만기 6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 협정을 갱신하여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추진하였으며, 외채 원리금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등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함.
- 2009년 5월에는 위기 예방 차원에서 IMF의 FCL(Flexible Credit Line: 1년 만기 탄력적 신용한도) 35억 달러를 도입하였으며, 금년 5월 이를 연장하였음.

## 4. 우리나라와의 관계

<표 3> 한·콜롬비아 교역규모

단위: 천달러

구 분	2008	2009	2010	주요품목
수 출	1,090,759	797,029	1,153,657	산업용기기, 운송장비, 소비재, 화학제품, 제지, 연료
수 입	143,429	124,918	325,157	석유, 커피, 석탄, 에메랄드, 니켈, 바나나
합 계	1,234,188	921,947	1,478,814	

자료: KOTIS, 한국무역통계

- 해외직접투자현황(2010년 9월 누계, 총투자 기준) 19건 74,811천달러

### □ 교역규모는 922백만 달러(2009년)

- 콜롬비아와의 교역 규모는 2006년 11.2억 달러, 2007년 12.4억 달러, 2008년 12.3억 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 9.2억 달러로 감소하였음. 2009년 기준 총 수출액은 7.97억 달러, 수입은 1.25억 달러를 기록
- 우리나라의 대콜롬비아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와 석유 화학 제품이며, 특히 2007년과 2008년 전체 수출액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전체의 55.0%, 64.8%를 차지하는 등 자동차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.
- 한편, 우리나라는 콜롬비아로부터 철강 금속제품, 농림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음.

□ 대 콜롬비아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2010년 9월말 기준 총 19건, 74,811천 달러임.

## V. 종합 의견

- 석유, 석탄, 가스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인 콜롬비아는 경제성장률, 재정수지, 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FDI 유입 확대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, 외채 상환 등으로 외채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음.
- S&P가 콜롬비아에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는 등 콜롬비아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며, 콜롬비아 정부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은 향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.
  - 다만,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은 국내경제 부문의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됨.
- 정치적으로는 집권여당의 산토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정책 지지율이 높은 우리배 정부의 친기업 성장 주도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.
-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, 콜롬비아의 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C1(stable)등급을 유지코자 함.

문의 : 조사역 박현희(☎3779-6676)

E-mail : sarapark@koreaexim.go.kr